

numbers 제 29호



주요 내용

2020. 01.03

1. 2020년, '1인 가구' 대세
2. ①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②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오랜 기간 대가족 형태를 이어왔다. 대가족 제도는 농경사회에 적합한 제도로써 가족 간 사랑과 화목함을 통해 서로 힘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개인이 가족의 이름에 종속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가치관이 변하면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시대를 거쳐 이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부부+자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1인 가구 대세 시대가 된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28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 본다. 특히 1인 가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살펴 봄으로써 1인 가구가 교회에 주는 의미, 교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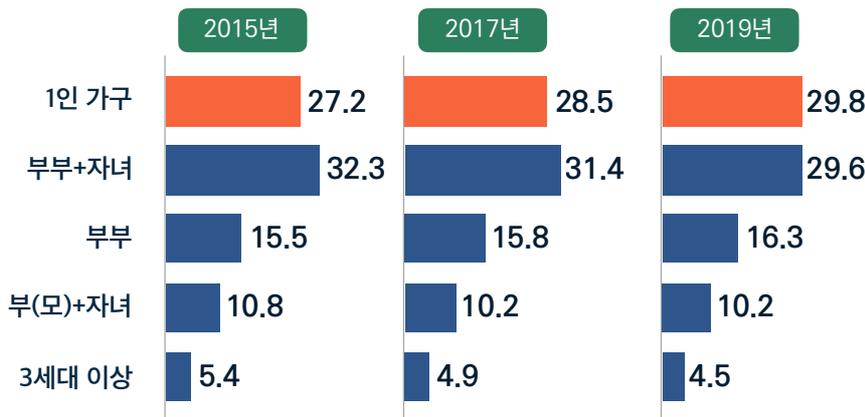
2019년, 1인 가구가 모든 가구 유형 중 1위로 올라섬

- 2017년에 가구 유형 중 '부부+자녀' 가구가 1위였는데, 2019년에는 '1인 가구'가 1위를 차지함
- 2047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전망이다

[그림] 연도별 가구 유형 구성비 추이(상위 5위)

(%)

[그림] 2047년 1인 가구 예상



2047년, 17개 시도 전체에서 1인 가구 1위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12.16,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5~2045년', 2017.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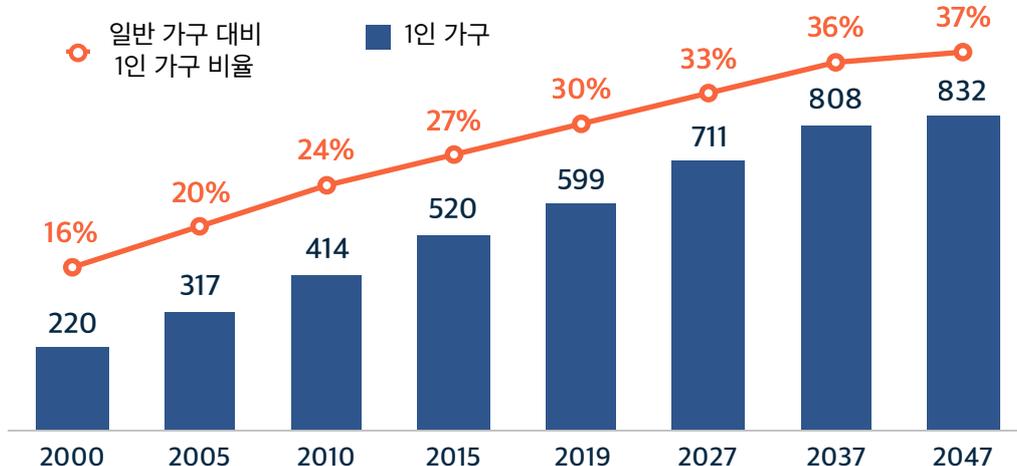
2

1인 가구 급증

- 2019년 1인 가구는 599만 가구로서 일반 가구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7년에는 113만 가구가 증가한 711만 가구로서 33%까지 증가가 예상될 정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그림] 1인 가구 추이

(%, 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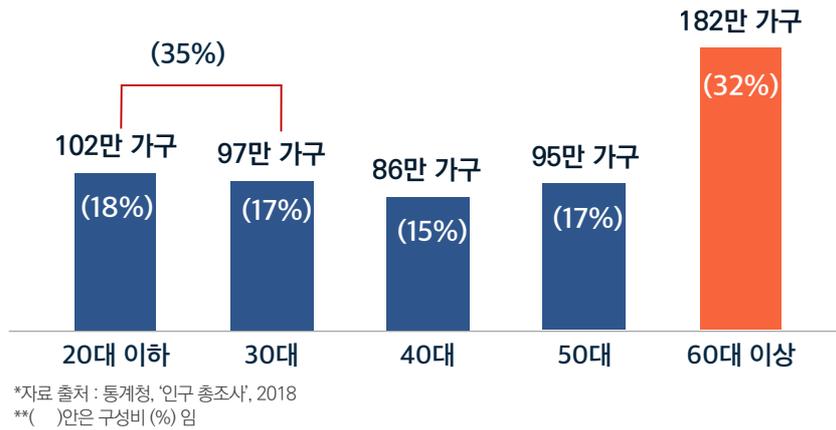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1) 2017년까지 통계·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9.28
2) 2017년 이후 추계·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9.12.16

● 20-3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30대가 35%, 60세 이상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는 15%, 50대는 17%를 차지함

[그림]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2017)



3 1인 가구 증가, '미혼'이 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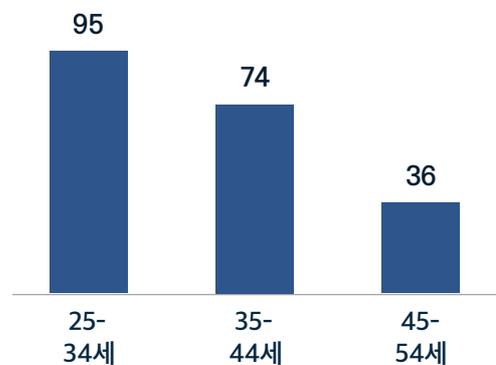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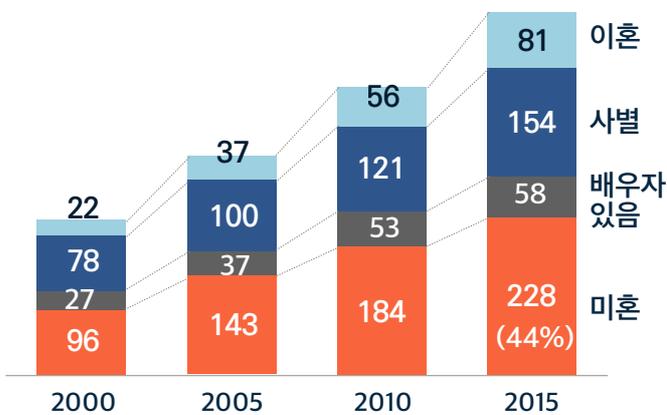
- 2015년 1인 가구는 '미혼'이 44%로서 1인 가구 발생의 주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 때문임
- 1인 가구 중 '배우자 사별'이 29%인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사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인 가구의 혼인 상태 추이(2015)

(만 가구)

[그림] 미혼 비율(연령별,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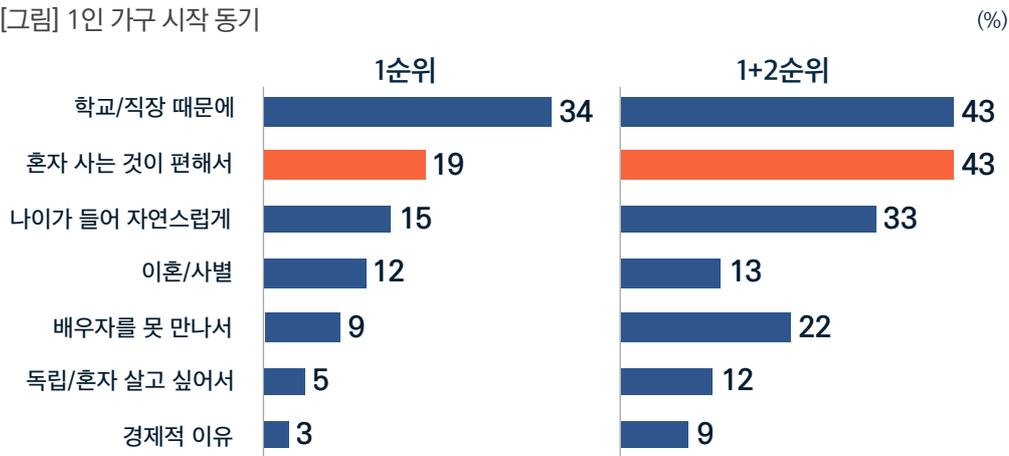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9. 28
 ** ()안은 구성비 (%)임

4 1인가구, 개인주의적 가치관 위에 성립

- 1인 가구를 선택한 1순위 이유는 '학교 직장 때문'임. 그러나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학교 직장 때문' 외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임
- 즉 1인 가구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인 가구 시작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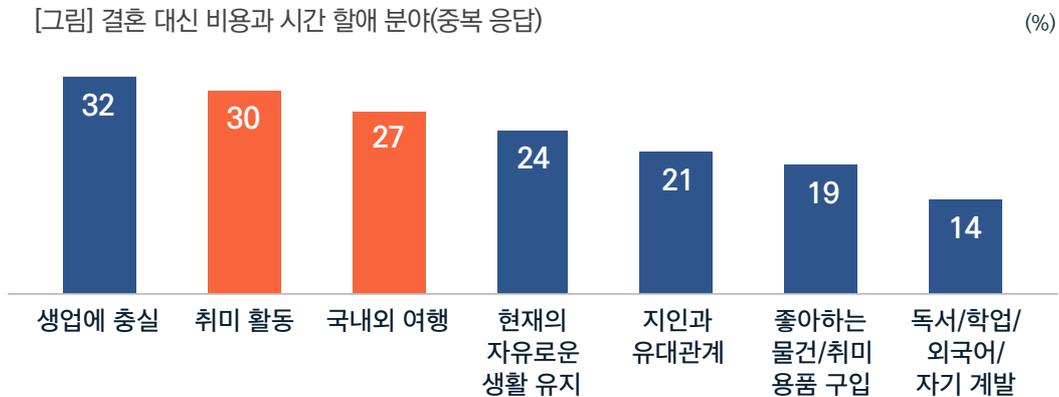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 25-59세 1인 가구 남녀(연소득 1,200만 원 이상으로서 본인 스스로 금융 의사 결정을 하는 1인 가구 생활 5개월 이상), 2,000명,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병행, 2019.04)

5 1인가구 결혼 대신 자기 생활 즐김

- 1인 가구가 결혼 대신에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는 '생업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취미 활동'과 '국내외 여행' 등 자기 생활을 즐기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결혼 대신 비용과 시간 할애 분야(중복 응답)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 25-59세 1인 가구 남녀(연소득 1,200만 원 이상으로서 본인 스스로 금융 의사 결정을 하는 1인 가구 생활 5개월 이상), 2,000명,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병행, 2019.04)

●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특징 보임

- 20-40대 여성은 '여행'에 시간과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할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30대 남성은 '취미 생활'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결혼 대신 비용과 시간 할애 분야(상위 3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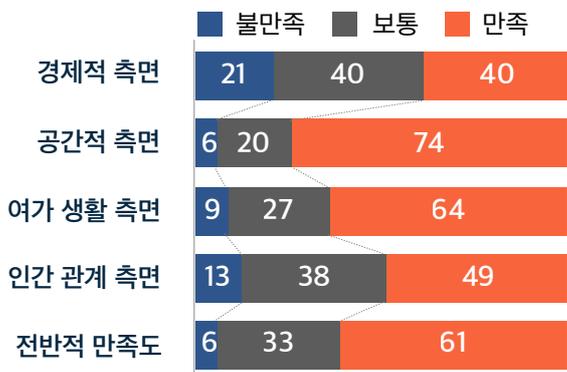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생업에 충실	22	20	26	27	33	28	34	49
취미 활동	37	26	36	38	30	27	26	26
국내외 여행	28	44	23	41	25	33	21	19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 25-59세 1인 가구 남녀(연소득 1,200만 원 이상으로서 본인 스스로 금융 의사 결정을 하는 1인 가구 생활 5개월 이상), 2,000명,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병행, 2019.04)

6 1인 가구, 61%가 현재 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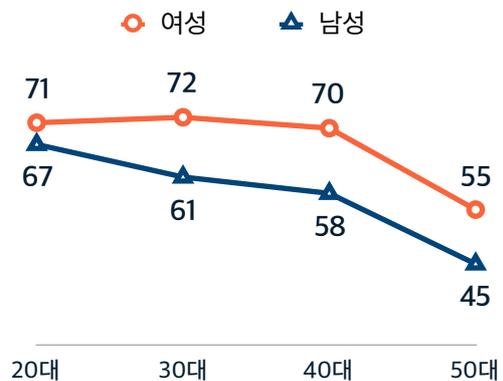
- 1인 가구 생활에 6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공간적 측면'과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경제적 만족도'와 '인간 관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인 가구 만족도가 높으며, '남성'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지만 '여성'은 40대 까지는 높은 만족도 수준을 유지함

[그림]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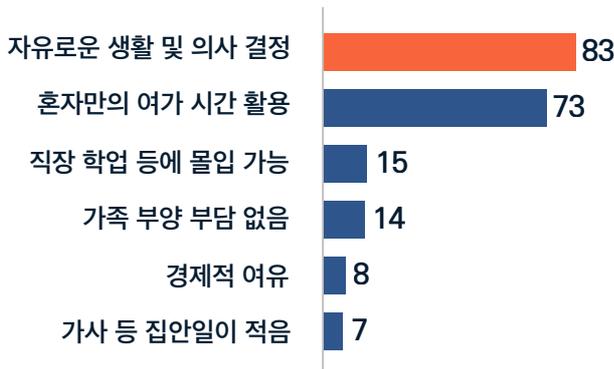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전반적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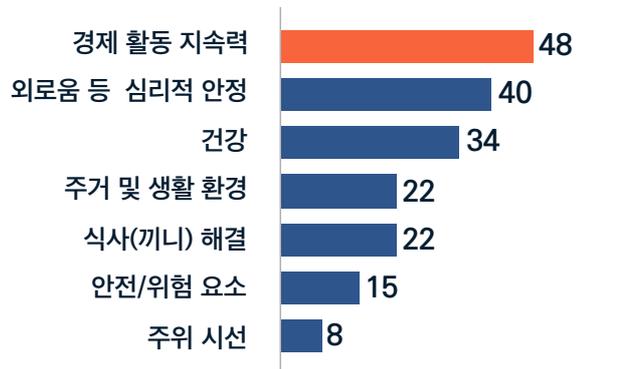
● 1인 가구, 현재의 장점 '자유, 미래의 걱정거리는 '경제력'

- 1인 가구의 대다수는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 결정'과 '혼자만의 여가 시간 활용'을 1인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인식함
- 반면에 '경제 활동 지속력'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실직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소득을 대체할 다른 가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1인 가구의 장점(중복 응답) (%)



[그림] 1인 가구 생활의 현재 걱정 거리(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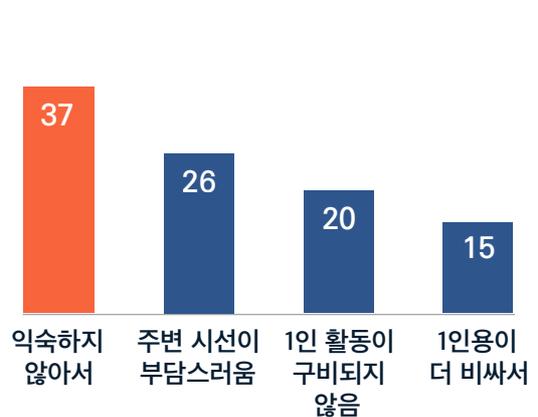
7 1인 가구, 타인의 시선 의식한다

- 1인 가구는 혼자 하기에 편하지 않은 활동으로 '해외 여행', '국내 여행' '문화 생활'을 꼽고 있는데 1인 가구 주요 관심사가 '여행', '취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익숙하지 않거나'(37%) '주변 시선 때문'(26%)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림] 혼자 하기에 편하지 않은 활동(중복 응답) (%)



[그림] 혼자 하는 활동이 불편한 이유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8

1인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 남성은 '게임', 여성은 '지인 모임'과 '영화'

- 1인 가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남성은 40대까지는 '게임'과 '영화관'으로, 여성은 '지인 모임'과 '영화관'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음
- 즉 남성은 '게임'과 '영화'로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고, 여성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함

[표] 1인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는 것(TV·모바일 영상 시청 제외, 최근 1년, 중복 응답, 상위 3위) (%)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여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1위	게임 65	게임 55	게임 39	지인 모임 45	지인 모임 55	영화관 49	영화관 46	지인모임 48
2위	영화관 45	영화관 43	영화관 34	헬스운동 26	SNS 커뮤니티 53	지인 모임 45	지인 모임 32	영화관 36
3위	SNS 커뮤니티 45	지인 모임 36	지인 모임 33	근교 여행 22	번화가 쇼핑물 48	SNS 커뮤니티 41	번화가 쇼핑물 32	근교 여행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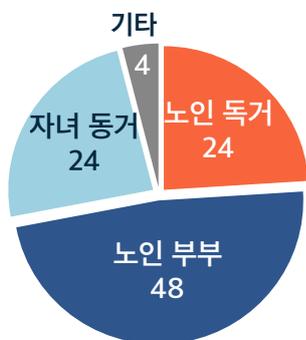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9.6.24

9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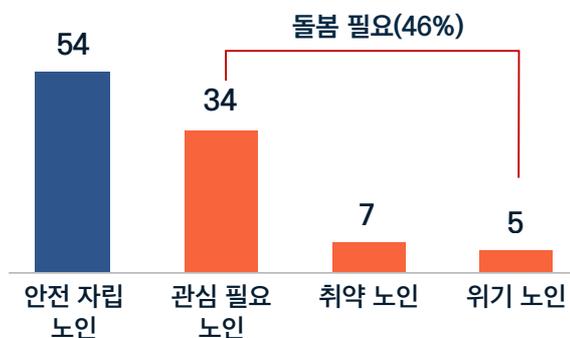
- 만 65세 노인 가운데 1인 가구, 즉 '독거 노인'의 비중은 24%임
- 이들 중 가족과 유대 관계가 강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안전 자립 노인'(54%)를 제외한 46%의 독거 노인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함

[그림] 노인 거주 형태(2017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 실태 조사', 2018.05 (전국 만 64세 이상 12990명, 면접 조사)

[그림] 1인 독거 노인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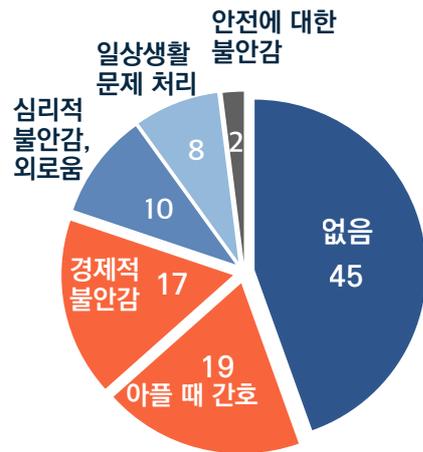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2018.7

**안전 자립 노인 : 가족과 유대 관계가 강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노인
 관심 필요 노인 : 가족 이웃과 유대 관계가 있지만 복지 서비스 욕구가 높은 노인
 취약 노인 : 사회적 교류가 일부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이 많은 노인
 위기 노인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된 노인

● 노인 1인 가구, 건강과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 높음

- 독거 노인의 절반은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와 '경제적 불안감'이고 다음으로는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이라고 응답함

[그림] 생활에서 어려움 형태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 실태 조사', 2018.05
(전국 만 64세 이상 12990명, 면접 조사)

10 시사점

통계청은 작년에 장래추계인구 발표에서 2019년 1인 가구를 30% 가량 내다 보았고, 2047년에는 전국에서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3p). 짧은 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급증의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1인 가구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개별화된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①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미혼 1인 가구(4p 위 그래프), ② 30대 후반부터 40-50대까지 가족의 해체, 실직, 기러기 현상, 이혼 등이 복합된 1인 가구(4p 아래 그래프), ③ 실버세대인 고령자 1인가구(8p 아래 그래프), 그리고 ④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트렌드세터인 1인가구(4p 위 그래프)가 존재한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이해할 때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급증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7p). 시대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야 한다. 나 혼자 있더라도 가족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면 단절이 아니고, 공동체에 있더라도 포용성과 사랑 바깥에 있으면 그는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보듬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임이나 분위기는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1인 가구는 교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되기 쉽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삶의 형태를 인정하게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최근 어느 교회에서 40세 이상 기혼 남성 1인가구 모임을 만들었더니, 회가 지날수록 회원수가 급증하였는데, 이 결과에 영향을 받아, 기혼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나오미'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새해가 시작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각 교회마다 혼자 사는 이들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회 정책 방향이 바뀌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관용이 아직은 부족한데,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 설교 내용' 절대적임
지난 1년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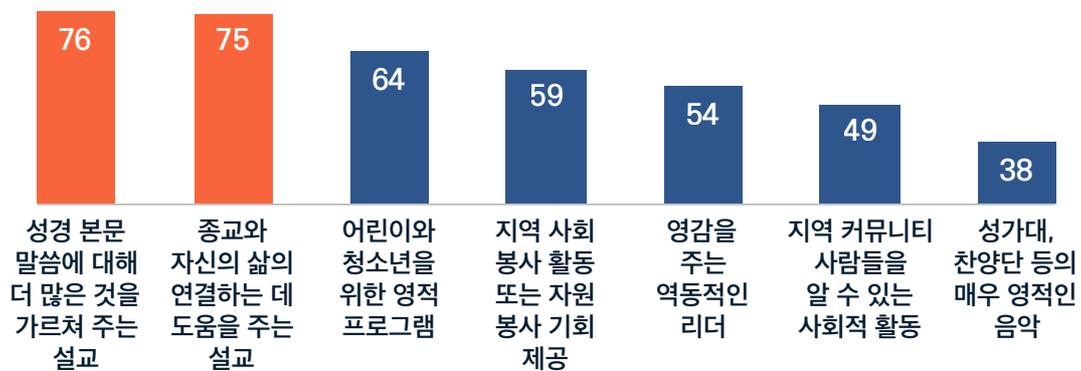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미국 크리스천의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이 절대적임

- 미국 갤럽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하는 미국 성도들에게 교회 출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설교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교회 출석 이유 관련, 다른 요인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설교'와 '음악'에 있어서는 개신교 성도가 가톨릭 성도보다 교회 출석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미국 크리스천,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주된 이유 (%)



*자료 출처 : 미국 Gallup, "Sermo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 2017.4.14 (월 1회 이상 교회 출석하는 18세 이상 교인, 745명, 전화 조사, 2017.3.9)

** 질문 문항 : 각 항목별 주된 이유(Major factor), '부수적 이유'(Minor factor), '이유가 아님'(Not a factor), '의견 없음'(No opinion)으로 질문하였는데, 이 중 '주된 이유' 응답만 표시하였음

● 미국 가나안 성도, 교회 가지 않는 이유로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44%)가 가장 높음

- 과거에 적어도 매월 교회에 출석했지만 현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된 이유로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44%)를 가장 많이 응답함
- 교회 출석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종교 그 자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36%)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감지되는 것으로 개별화, 나홀로 문화, 모바일 문화 등의 영향으로 보임

[그림] 미국 가나안 성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주된 이유(상위 7위) (%)



*자료 출처 : 미국 Gallup, "Sermo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 2017.4.14 (월 1회 이상 교회 출석하는 18세 이상 교인, 745명, 전화 조사, 201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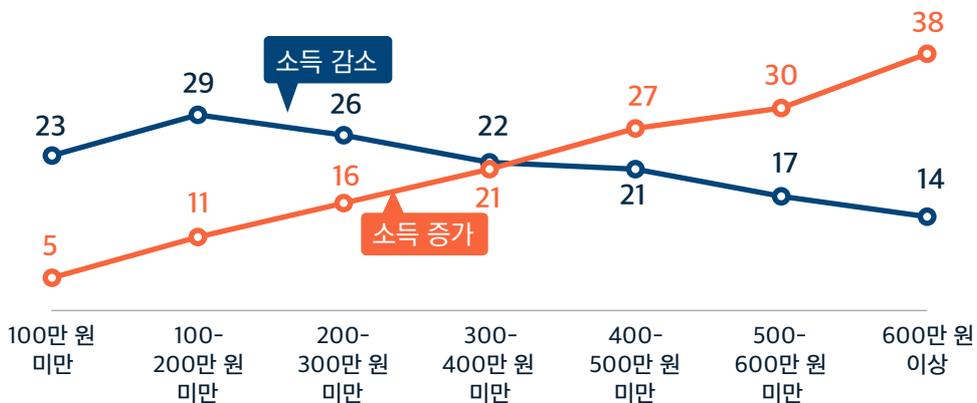
** 질문 문항 : 각 항목별 주된 이유(Major factor), '부수적 이유'(Minor factor), '이유가 아님'(Not a factor), '의견 없음'(No opinion)으로 질문하였는데, 이 중 '주된 이유' 응답만 표시하였음

2

지난 1년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이 증가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지난 1년간 가구 소득 변화(월 가구 소득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사회조사결과', 2019.11.25.
 (전국 19,000 표본 가구 내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2019.05)
 **보기 항목 : 증가, 동일, 감소에서 동일은 제외하고 증가와 감소만 표시한 것임

● 50대 연령부터 소득 증가보다 감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가구 소득 증감을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소득 증가가 감소보다 높으나, 50대를 넘어서면서 소득 감소가 증가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지난 1년간 가구소득 변화(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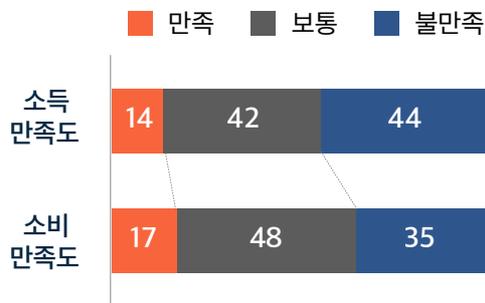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사회조사결과', 2019.11.25.
 (전국 19,000 표본 가구 내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2019.05)
 **보기 항목 : 증가, 동일, 감소에서 동일은 제외하고 증가와 감소만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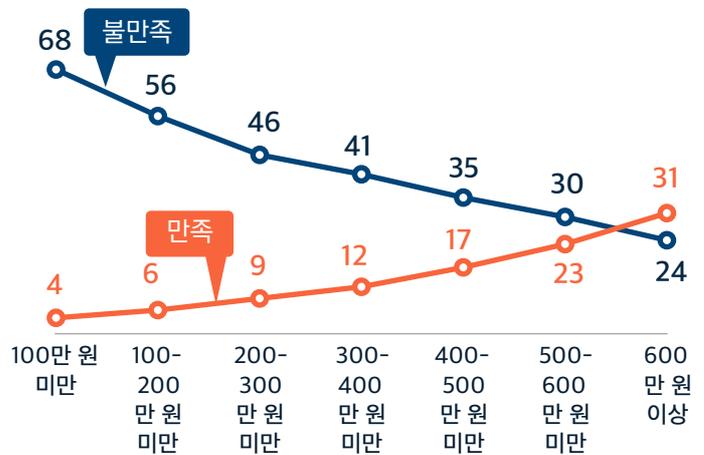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소득과 소비, 양쪽 모두 20%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소득과 소비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소비 만족도(17%)가 소득 만족도(14%) 보다 약간 더 높으며, 전체적으로 20%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월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까지는 소득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으며, 소득 600만 원 이상 되어야 소득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높아짐
- 소득 만족도는 40대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 불만족도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

[그림] 소득 vs 소비 만족도 (%)



[그림] 소득 만족도 vs 불만족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사회조사결과', 2019.11.25. (전국 19,000 표본 가구내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2019.05)
 ** 5점척도 항목으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과 불만(매우 불만+약간 불만)으로 표시함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신년 여론조사_KBS](#)(한국 사회 낮은 신뢰도 심각)
KBS_2020.01.01.
 “처음 만난 사람보다 못 믿어...‘국회·언론·검찰’ 불신 톱3”
- 

[신년 여론조사_서울신문](#)(국민 갈등 심화)
서울신문_2020_01.01
 “국민 68% ‘조국 이후 분열 심화’... 가장 큰 갈등 ‘빈부 차’ 꼽아”
- 

[대한민국 인구 흐름이 바뀐다](#)
조선일보_2020_01.01
 “베이비부머 800만명 65세 진입 시작...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
- 

[가출 청소년 실태](#)
조선일보_2019.12.28
 “가출 청소년들 새 아지트는 치킨집”
- 

[‘나는 썩어죽는다’, 60% \(썩어죽을 실태\)](#)
세계일보_2019.12.29
 “취업도 어렵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일찌감치 ‘독립’ 포기”
- 

[소득보다 자산 양극화 심각](#)
한겨레신문_2020.01.01
 “서울 17.6억 대 3.7억..아파트 상·하위 가격차 9년만에 최대”
- 

[세계 주요 국가별 상위 1%의 부의 점유율](#)
중앙일보_2020.01.02
 “‘기생충’ 신드롬 이면엔 불평등,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스토리가 있는 기사

- 

[박항서 리더십](#)
중앙일보_2020.01.01
 “박항서 ‘잘 져야한다’...이 낮선 도전에 ‘매직’이 있다”
- 

[한국 사회 갈등 인식, 2020은 화해로](#)
동아일보_2019.12.30
 “갈등의 2019, 화해의 2020”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